

2014년

수산업관측사업(대중성 어종) 발전방안 워크숍

2014. 11. 7(금)~8(토)

목 차

I. 회의 개요	1
1. 목 적	1
2. 개 요	1
3. 주요 내용	1
4. 워크숍 일정	2
5. 참석 대상자	3
II.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	4
III.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 방안	11
Memo	25

I. 협의회 개요

1. 목 적

-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중성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과 수매 비축 사업 등 수급 조절 사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

2. 개 요

- 일 시 : 2014. 11. 7(금) ~ 8(토) 2일간
- 장 소 : 통영(경상남도 통영시 통영베이콘도)
- 주 최(관) : 해양수산부,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수산업관측센터)
- 참석대상 : 해양수산부, KMI 및 관련 기관 등 관계자 25명 내외
 - 해 수 부 : 유통가공과 업무 담당자
 - 관측센터 :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및 연구원
 - 수 협 : 수협중앙회, 강릉, 속초, 죽변, 후포, 목포, 한림, 성산포, 서귀포, 대형선망, 기선권현망수협 관계자

3. 주요 내용

< 주제발표 >

- 수산업관측(대중성어종)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KMI)
-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(KMI)

< 토 의 >

- 대중성어종 관측사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
 - 대중성 어종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도출(품목 도입 등 관련)
- 수급관리정책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 모색
 - 도입 품목 및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, 향후 확대 방향

4. 워크숍 일정

일 시			주 요 내 용	비 고
11.7 (금)	14:00~14:30	30분	○ 입실 및 참가자 등록	
	14:30~15:00	30분	○ 워크숍 진행 계획 설명 ○ 참가자 소개 및 인사	
	15:00~15:30	30분	< 주제 발표 > ○ 대중성어종 수급 및 가격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	KMI (수산업관측센터)
	15:30~15:45	15분	○ 휴 식	
	15:45~16:45	60분	< 토론 > ○ 대중성어종 조사사업의 효율성 증진 방향	전체
	16:45~17:00			
	17:00~17:30	30분	< 주제 발표 > ○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 도입 방안	해양수산부
	17:30~18:30	60분	< 토론 > ○ 가격안정대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	전체
	18:30~20:00	90분	○ 석식 및 휴식	
11.8 (토)	07:30~09:00	90분	○ 조 식	
	09:00~10:00	60분	< 자유토론 > ○ 수산물 수매비축 개선 방향 - 수매비축사업 관련 예산 및 품목 확대 방향 등	전체
	10:00~13:00	120분	○ 통영바다목장 견학	
	13:00~14:00	60분	○ 중식 및 퇴실	전체

5. 참석 대상자

소 속	부서/직위	성명	연락처
해양수산부	유통가공과 과장	박성우	
"	유통가공과 사무관	김성원	
"	유통가공과 주무관	홍길수	
한국해양수산개발원	수산업관측센터장	주문배	
"	수산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	백은영	
"	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	김수현	
"	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	성진우	
"	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	허수진	
"	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	하혜수	
수협중앙회	유통기획부 수매비축팀장	주규현	
"	유통기획부 수매비축과장	김정우	
강릉수협	판매과장	김상현	
속초수협	판매과 대리	염경태	
죽변수협	판매과장	황문형	
후포수협	판매과장	장무석	
구룡포수협	판매과장	박창수	
대형선망수협	유통사업과장	김동현	
기선권현망수협	지도경제상무	정창진	
"	판매사업과장	장재석	
"	판매사업과	박상현	
목포수협	판매과장	김창운	
한림수협	판매과	고봉남	
성산포수협	유통사업과장	강익준	
서귀포수협	판매과장	한예준	

II. 주제발표

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1.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

1) 사업의 필요성

○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

-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물 생산물량 변화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, 수산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
○ 최근 해양환경 변화, 일본 방사능 유출 등 시장 급변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

- 연근해 생산물량의 변동폭이 크고(고등어, 갈치), 원양산 어항이 국내 공급을 크게 좌우(오징어, 명태)
 - ※ 고등어는 최근 10년간 최소 94,616톤, 최대 184,324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(136,855톤)의 -44.6~34.7%의 진폭을 가짐
 - ※ 갈치는 최근 10년간 최소 33,101톤, 최대 85,45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(62,928톤)의 -47.6~35.8%의 진폭을 가짐
 - ※ 오징어 및 명태는 국내 공급량의 50~100%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공급됨

○ 해외시장 상황 또한 대중성 어종의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음

- 주변국 시장가격이 좋을 경우, 국내산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가격이 동반 상승하거나,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 수입 및 반입 물량이 감소할 수 있음

○ 시장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소비 급변 가능성 상존

-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 여파로 9, 10월 대중어 소비가 20~40%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소비가 급변하는 등 수급 불균형 초래

○ 주요 어종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물가관리체제 구축 필요

- 국내 수산물 소비 비중이 높은 어종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,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가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의 안전성을 향상

2) 사업의 목적

-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동향 조사 및 정책 지원
 -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, 유통, 소비, 재고, 수출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생산유통 및 수급 동향 모니터링 정보 제공
 - 기존에 실시해 온 정부비축사업 등 물가관리정책과 연계하여 선제적 물가관리체계 구축
 - 정보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수급관리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
3) 기대 효과

- 대중성 어종의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
- 대중성 어종의 모니터링을 통한 이들 어종의 장기적 가격 안정화 실현
-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생산자, 유통, 도·소매업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

2. 사업 경과

- 2011년 12월 :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업 진행 의뢰(수산정책과)
- 2012년 5월 : 1차 시범사업 보고서 작성 및 보고(5월 전기)
- 2012년 7월 : 장관보고, 물가책임장관회의 - '13년 사업 도입 결정
- 2013년 1월 : 시범사업연도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
- 2013년 1월 : 본사업 실시(4종 : 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명태)
- 2013년 2월 : 조기 시범사업 준비 및 생산 및 가격 동향 작성 및 보고
- 2013년 5월 : 주간 수산물 가격 동향 보고 시작(매주 금요일)
- 2013년 11월 : 대중어 사업 자료 공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
- 2014년 1월 : 사업품목 확대(기존 4개 어종 ⇒ 6개 어종(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명태, 참조기, 마른멸치))
- 2014년 2월 : 주요 물가 관련 동향 보고 작성(생산자, 소비자물가지수)
- 2014년 10월 : 소금 가격 동향 주간 보고서 작성

3. 주요 사업 내용

1) 생산동향 모니터링

○ 연근해 생산 : 전국 수협 일별 위판량(공동어시장,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포함)을 기준으로 추정

$$\text{추정생산량} = \frac{\sum \text{일일 위판량}}{\text{최근 3년 계통판매비율}}$$

- 업종별 생산 동향 자료의 점검을 위해 주요 수협 위판량은 별도 집계

※ 고 등 어 : 2개 수협(부산공동어시장, 부산시수협)

※ 오 징 어 : 15개 수협(강릉시, 고성군, 동해시, 죽변, 후포, 경주시, 구룡포수협, 서산수협, 진도군, 남해군, 삼천포, 성산포, 부산공동어시장, 부산시수협,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)

※ 갈 치 : 9개 수협(목포수협, 부산공동어시장, 여수, 마산, 서귀포, 성산포, 제주시, 한림수협)

※ 참 조 기 : 10개 수협(목포, 한림, 추자도, 군산, 여수, 모슬포, 성산포, 제주시수협,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, 부산공동어시장,)

※ 마른멸치 : 9개 수협(기선권현망, 부산시, 삼천포, 여수, 완도금일, 고흥군, 서천군, 서천서부, 보령, 대천서부수협)

○ 원양 생산 : 원양어업정보 어종별 반입현황 일별 자료 집계

○ 지역별 생산 동향 모니터링 강화

구 분	생 산
고등어	2명 대형선망수협, 부산공동어시장
오징어	7명 구룡포수협, 후포수협, 부산시수협,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, 대형기선저인망수협, 원양산업협회, 아그네스수산
갈 치	5명 서귀포수협, 한림수협, 부산공동어시장, 성산포수협, 목포수협
명 태	2명 원양산업협회, 한성기업
참조기	3명 제주, 영광, 목포수협
마른멸치	6명 통영, 부산, 서천, 보령, 삼천포, 여수수협

※ 근해안강망은 부정기 자문

○ 어황동향

- 연근해 어업 생산 동향 : 주요 기관 어황 동향 자료 및 지역 자문 활용
- 주요 기관 :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간 어황동향 및 수협중앙회 어황방송

2) 가격 동향 모니터링

○ 산지가격 : 주요 수협 산지 출하 단가 활용

- 고 등 어 : 대형선망수협
- 오 징 어 : 부산공동어시장
- 갈 치 : 부산공동어시장, 서귀포수협
- 참 조 기 : 한림수협
- 마른멸치 : 기선권현망수협

○ 도매 및 소매가격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조사 자료 활용

- 고 등 어 : 신선·냉장, 선어 중품(마리당 30cm(마리당 350~500g)) 가격
- 오 징 어 : 신선·냉장, 냉동 중품(상자당 20~30마리(마리당 260~400g)) 가격
- 갈 치 : 신선·냉장 중품(전장 80cm, 1상자(10kg)당 30마리(마리당 330g)) 가격
- 명 태 : 냉동 중품(지대(21.5kg)당 32마리(마리당 670g)) 가격
- 참 조 기 : 마리당 80~100g크기의 냉동품의 kg당 가격(대형소매점가격)
- 마른멸치 : 중멸(4.5~7.6cm) 평균가격

○ 해외가격 : 일본 현지 공시 가격 및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해외가격 조사사업 자료

- 고등어 :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 공시 가격(1개월 격차)
- 오징어 :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 공시 가격(1개월 격차)
- 갈 치 : 중국 통관시장 공시가격(당월 자료)
- 명 태 : 러시아 캅차카지역 도매가격(1~2개월 격차)

※ 기존 오사카, 츠키지 도매시장 공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2개월의 격차가 있었으나, 2014년 10월부터 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입수하여 정보격차 1개월 축소

○ 소매 동향 파악을 위한 대형소매점과의 협력체계 구축

- 이마트, 홈플러스(정기 자문), 롯데마트(부정기 자문)

- 대중어 6개 품목 이외에도 수산물 매출관련 자문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

3)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

-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(매월 15, 말일 기준 수출입 신고 자료)
- 해외선사 및 부산지역 수출입상사를 통한 부정기 자문
 - Korea Pelagic, OP INC, 뉴질랜드 명예수산물관 등

4) 재고 동향

- 전기 : 과거 평년 추이를 반영하여, 지난 기 추정량에서 가감
- 후기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자료 이용

4. 성과와 반성

☐ 월 2회 격주보 발간

- 회당 1,600부 발행
- 어민들의 경우 수협을 통한 배포를 원칙으로 각 수협 판매과로 단체 발송하고 있으나, 점차 개별어업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 예정

☐ 시범사업보고서 발간

- 참조기(10회), 마른멸치(2회) 시범사업보고서 발간

☐ 일일 수산물 가격 모니터링

- 수산물 수요 성수기 및 어한기 수산물 가격 일일 모니터링 실시
- 2014년 3회 실시(설(1월 16일~29일), 봄 어한기(5월 15일~30일) 추석(8월 12일~9월 5일)

□ 품목별 가격안정밴드 설정 관련 연구

- 평시, 주의, 경계, 위기의 4단계로 구분된 품목별 가격안정밴드 설정
- 설정된 가격안정밴드를 이용한 가격 단계 수준 제시
- 이상 신호 발생 시 즉시 보고 체제 수립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제 구축
- 향후 사업 도입 관련 연차별 계획 수립

□ 수급 급변 요인 발생시 긴급 대응체제 강화

- 대중성 어종의 수급 급변 요인 발생시 격주보 이외의 호외보 발행
 - 설 호외보 발간

□ 소비관측 강화 필요

- 기존의 모니터 형태로는 정성적 분석만 가능
-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 등의 예를 볼 때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체크하는데 한계
- 시장패널을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까지 확대 필요
- 소비자패널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 강도와 태도 변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소비자패널 구축을 위한 설계 수행 중으로 12월 시범조사 실시 후, 2015년부터 정례화 예정

5. 향후 추진 계획 : 사업의 심화 추진

- 지난 2년간의 사업의 외연적 확대에서 내연적 확대 추진
- 소비관련 정보(수요, 가격)의 다양화로 정책 및 생산단계에 정보 제공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

☐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

- 소비자패널을 이용한 수요측면 정보 강화
- 기존 격주보 이외에 소비자 수요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정보 제공 예정

☐ 가격안정대 운영 관련 세부 조율 시행

-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관련한 기능 강화
- 향후 품목 확대를 위한 산지 및 소비자가격 조사 품목 다양화 계획 수립

☐ 가격정보 다양화 추진

- 기존의 냉동, 신선가격 조사 및 공표
- 크기별, 등급별 다양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(보고서 외 다양한 방법 활용)

III. 주제발표

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 방안

1. 수산물 수급 조절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

1) 필요성

- 수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은 생산의 불확실성, 생산과 소비의 계절성에 기인
 - 수산물의 생산은 기후 등과 같은 자연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과 생산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 - 또한 생산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으로 인해 공급요인에 의한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 가능성이 큼
 - 한편 명절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소비의 계절성으로 인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존함
- 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
 - 성어기의 급격한 생산 증가는 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생산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 - 반면, 수요 급등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명태 등의 어종은 국내 수산물 소비 비중이 크며, 해양환경 변화, 국내외 시장가격 등 수급의 변동 요인이 매우 다양함
 - 고등어, 갈치의 경우 연근해 생산물량의 변동폭이 크고, 명태와 오징어는 원양산 어황이 국내 공급을 크게 좌우함
 - ※ 고등어는 최근 10년간 최소 94,331톤, 최대 187,24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(133,059톤)의 -29.1~40.7%의 진폭을 가짐
 - ※ 갈치는 최근 10년간 최소 32,526톤, 최대 85,450톤이 생산되어 평균 생산량(58,588톤)의 -44.5~45.8%의 진폭을 가짐
 - ※ 오징어 및 명태는 국내 공급량의 50~100%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공급됨

- 또한 이들 어종은 해외의 수급 및 가격 변화가 국내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음
 - 주변국 시장가격이 좋을 경우, 국내산 수출량이 증가하여 국내가격이 동반 상승하거나,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 수입 및 반입 물량이 감소할 수 있음
- 이에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수준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경제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

2) 현황

-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으로는 수산비축사업, 수산물수매지원사업, 수산업관측사업, 자조금사업 등이 있음
 - 수산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은 주로 어선어업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며, 수산업관측사업과 자조금사업은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
 - 사업별 주체를 살펴보면, 수산비축사업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정부가,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은 저장·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유통업자가,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산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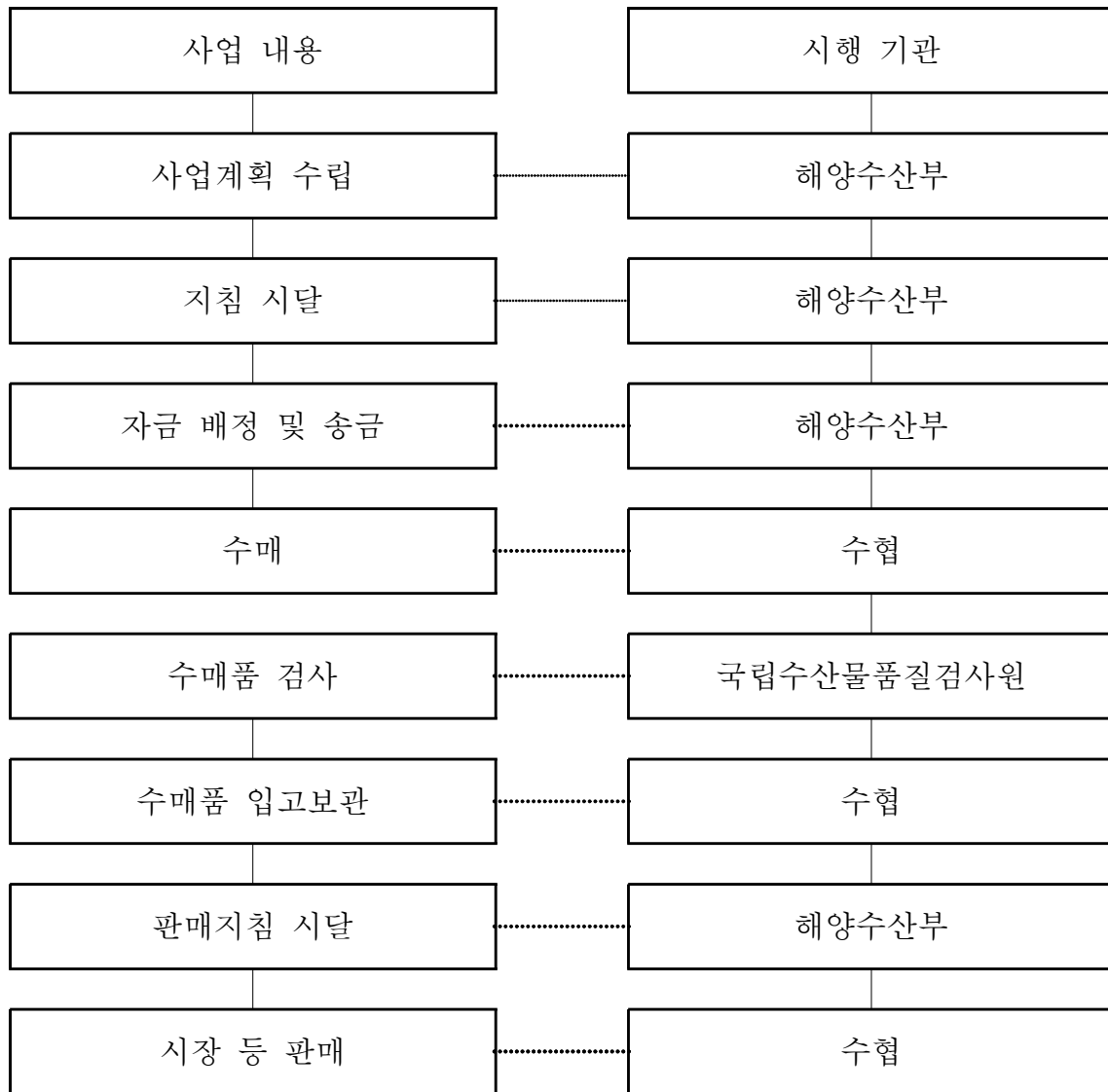
(1) 수산비축사업

- 수산비축사업은 수산물의 ‘수급조절’과 ‘가격안정’의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
 - 주 생산시기에는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·비축하여 비생산시기 및 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
 - 주 생산시기에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·비축하는 과정에서 대량 집중생산으로 인한 수산물의 산지가격 폭락을 예방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지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음
 -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가 많이 되는 성수기에는 비축된 수산물을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

으로 함

- 수산물비축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
 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음
 - 수산업법 제8장에서는 수산물발전기금의 설치(제76조), 기금의 용도(제79조)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, 이에 의해 수산물발전기금을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비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수산물비축사업에는 해양수산부, 수협중앙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, 기관별 역할과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
 - 해양수산부 : 사업의 시행주체로 구매 및 판매계획 수립과 시행, 소요자금 지원
 - 수협중앙회 : 사업의 대행주체로 세부 구매 및 판매계획 수립 및 시행
 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: 구매품 검사
- 수산물구매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수산물의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, 저장·가공된 수산물을 적정시기에 판매함으로써 수산물의 가격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¹⁾
 -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협중앙회, 지구별·업종별수협, 어촌계를 포함한 생산자 조직, 수산물 가공·유통업체 등임
 - 사업의 형태는 수산물 원료 구매와 가공구매 자금 융자로 구분되며, 25%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고,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임

1) 김광호 외, “수산물비축 및 구매지원 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” 『해양정책연구』, vol.26 no.1(2011), pp129



<그림 1> 수매비촉사업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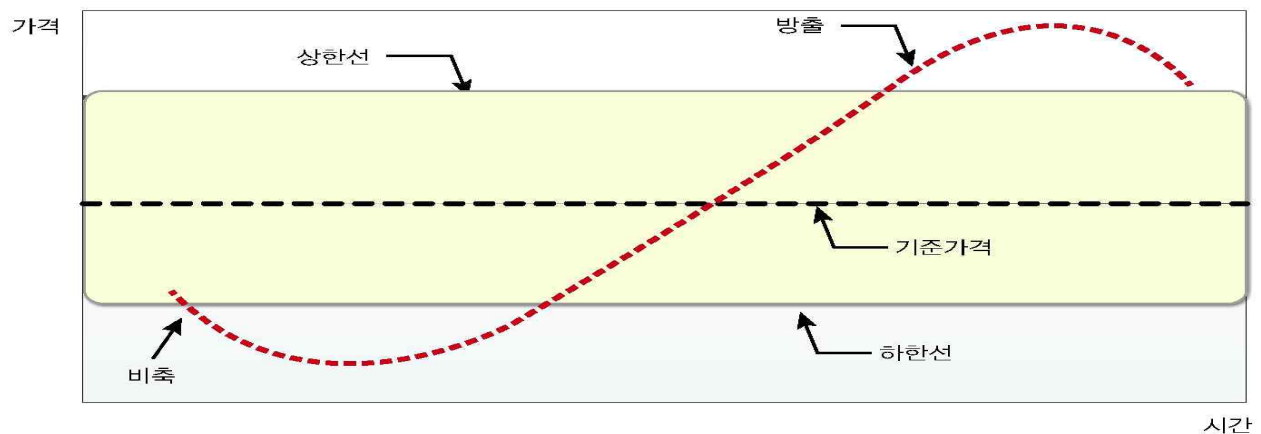
2. 가격안정대제도 운영

1) 주요 개념²⁾

- 수산물의 수급조절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가격안정대제도(stable within the price range)는 수산물 생산의 계절성을 이용한 것임
 - 어떤 상품의 큰 폭의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그 상품의 가격 폭을 설정하고, 가격을 설정된 범위 내에서 안정시키려는 정부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행하는 가격 조작 수단임

2) 강종호, 「양식 광어의 생산자주도 공급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」 2010. 12. p37~38.

- 특정 상품에 대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, 이 상품의 가격이 설정된 최저가격을 하회하면 정부에서 이를 매입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
- 이와 달리 상품의 가격이 최고가격을 상회하게 되면, 정부는 보유중인 상품을 방출하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이 최고가격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정책임



< 그림 2 > 수산물의 가격안정대

- 수산물은 생산의 계절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음
 - 일부 어류와 전복양식을 제외하고는 생산의 계절성이 존재하여 계절적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으며, 이와 달리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급감하는 계절이 존재함
 - 또한 생산과 관계없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존재하는데, 추석과 설이 가장 대표적인 시기임
 - 생산 집중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생산물의 가격이 급락하여 생산자 소득이 감소하며, 생산이 급락하는 어한기와 수요가 급증하는 수요 성수기에는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
 - 가격안정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상한선을 정하고, 생산기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가격하한선을 정함
- 가격안정대는 저장성과 가격변동폭 모두를 고려해야 함

- 가격안정대를 운영하기 위한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생산의 주기성을 고려한 저장·보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
- 선정된 품목이 가격 급등시기와 생산 집중시기간의 시차만큼 보관될 수 없는 것이라면 가격안정대를 운영함에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
- 다음으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연간 가격 변동폭과 생산의 풍흉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폭을 설정해야 함

2) 가격안정대의 설정 및 운영

- 가격안정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, 이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다양성의 측면에서 좋을 것임
- 따라서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해 각각 4단계로 구분하고, 이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설정하였음
 - 각각의 가격 방향에 대해 평시, 주의, 경계, 위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설정함
 - 평시단계 : 수급이 정상적이고,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상황
 - 주의단계 : 정상적인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 ‘경계’단계로 가기 직전까지로 가격 추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,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
 - 경계단계 :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심각해져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
 - 위기단계 : 가격의 폭등락으로 생산자, 소비자의 부담이 극심해져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상실된 상태
- 각 단계에 따른 가격 설정범위(안)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, 최종결정은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함
 -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상

한은 소비자가격으로, 생산자보호 목적이 강한 가격의 하한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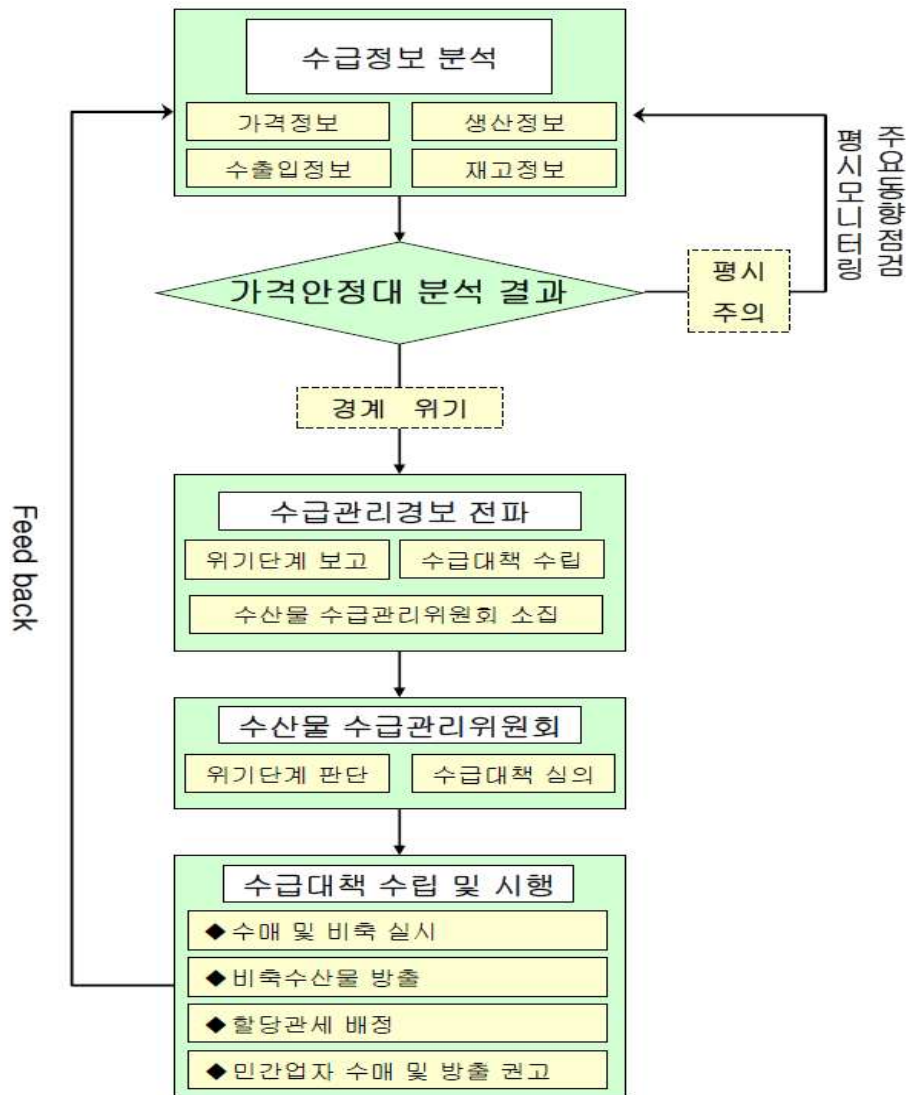
- 이는 산지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드시 소비자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,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,
- 수매비축사업과의 정책 연계성 차원에서도 수매·비축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, 방출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

< 표 1 > 수산물의 가격안정대

구분	범위
평시	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\pm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80%
주의	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\pm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100%
경계	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\pm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150%
위기	최근 5년 월간 평균가격 \pm 월별 표준편차 범위의 200%

○ 가격안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

- 평시단계 :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정상체제 운영(월 2회)
- 주의단계 :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정상체제 운영(월 2회) 및 비축 물량 점검 등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
- 경계단계 : 비축물량 방출 및 생산, 가격, 재고 등 점검 기간 단축
- 위기단계 : 수산물수매지원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매입/방출 권고, 수입 촉진



< 그림 3> 수산물 가격안정대에 의한 수급 조절 체제

3) 수급관리위원회

- 수급관리위원회는 수산물의 생산, 유통, 소비 주체의 합의에 의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임
- 구성은 생산자, 유통업자, 소비자, 학계, 정부인사 10~20명으로 함
- 역할은 ①수산물의 수급대책 등에 대해 품목별 수급 전망 및 위기단계를 판단하고, ②수급조절대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, ③수급안정대책의 적절성을 심사하고, ④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

4) 연차별 추진계획

-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안정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, 특종 어종을 다양한 어법을 통해 어획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질이 존재한다는 것임
 - 갈치를 예를 들면 채낚기와 연승 등 낚시어법으로 어획된 갈치와 유자망, 안강망으로 어획된 갈치, 트롤을 포함한 저인망으로 어획된 갈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
 - 통상 은갈치라고 불리는 낚시어법으로 어획된 갈치 또한 선어와 냉동으로 나뉘는 등 어법 및 상태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매우 큼
- 따라서 가격안정대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
- 이에 따라 가격안정대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,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품목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선정된 품종은 어획형태가 단순한 어종 1, 대표어획방법이 다양하지만 비교적 품질이 단순한 어종 1, 당장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 1로 구성하였음
 - 어획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어종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94.0%를 대형선망에서 어획하고 있는 고등어가 적합함
 - 다양한 어법으로 어획되면서 비교적 품질이 단순한 어종으로는 오징어,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명태가 적합함
- 어종의 선정에는 가격안정대 운영에 필요한 가격자료가 현재 가용한지도 고려되었음
 - 갈치, 삼치, 참조기 등은 냉동품에 대한 객관적인 소비자가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

< 표 1 > 연차별 가격안정대 도입 품목

구 분	2015년	2016년	2016년 이후	비고
어종	고등어 오징어 명 태	마른멸치	참조기 삼치	

5) 기존 수매비축사업과 병행 추진

- 가격안정대에 의한 수매·비축 또는 방출은 정기적으로 일정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
- 따라서 기존의 수매비축 방식과 가격안정대제도의 적절한 혼용이 필요함
- 연차적 진행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수매비축사업과 가격안정대제도의 비율을 7 : 3으로 하여 운영
- 가격안정대제도 운영에 필요한 물량이 소진되면, 수급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배정
- 매해 10월 가격안정대제도 소진율을 파악하여, 소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에 배정

6) 수산물 가격조사체계 재구축 필요

- 가격안정대 운영을 위해서는 품목의 산지 및 소비자가격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함
- 기존 aT의 경우 소비자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
 - ※ 냉동수산물의 경우 고등어, 명태, 오징어의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
- 산지가격은 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
- 이에 따라 산지수협과 가격안정대 분석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환 체계 구축과 신규도입품목의 소비자가격 조사체계의 수립이 필요함

3. 가격안정대 운영

1) 고등어

□ 수급 관련 특징 및 도입 가능성 검토

○ 고등어는 생산의 계절성이 가장 뚜렷하게 발생하는 어종임

- 고등어는 생산량의 94.0%가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어획되고 있으며, 연간 생산량의 72.8%가 9~12월에 집중되며, 3~7월에는 연간 생산량의 5% 미만의 물량이 어획되고 있음

< 표 2 > 최근 5년 고등어 월평균 어획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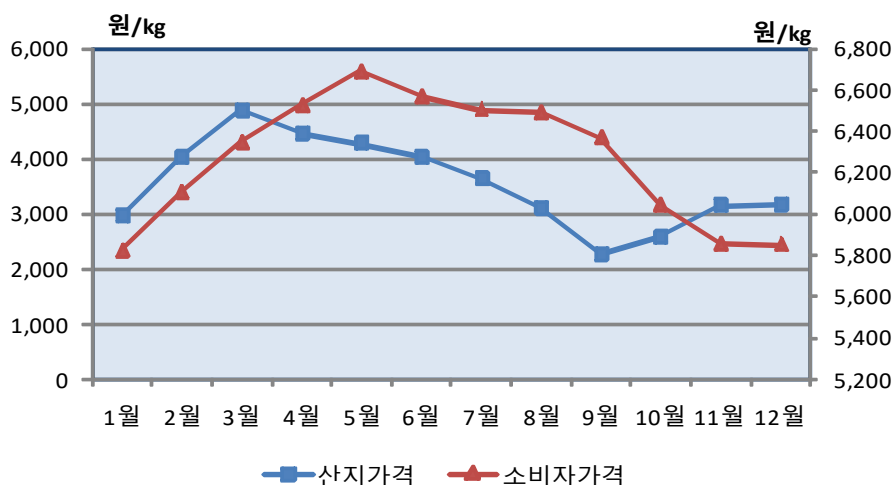
(단위: 톤, %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
합계	14,120	6,426	4,213	1,568	2,436	3,207	4,609	9,968	17,335	23,189	14,998	17,305	119,374
비율	11.8	5.4	3.5	1.3	2	2.7	3.9	8.4	14.5	19.4	12.6	14.5	100.0

자료: 수산정보포털(www.fips.go.kr) 어업생산통계를 재가공

- 특히 45월은 대형선망어업의 자율적 휴어기가 포함되어 있어 어획량 비중은 2% 이하로 떨어지게 됨
- 고등어 생산량이 적은 5월 소비자가격 최고, 생산이 많은 9월은 산지가격 최저 수준
 - 고등어가격은 생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큰폭으로 변화하는데, 소비자가격의 경우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는 생산량이 적은 5월이며,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9월에는 산지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됨
 - 산지가격은 월평균 0.851, 소비자가격은 0.448의 진폭계수³⁾를 보이고 있어 평균가격의 각각 $\pm 42.5\%$, $\pm 22.4\%$ 정도의 월간 가격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음

3) 평균가격 대비 가격의 진폭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.
진폭계수 = (최대값-최소값)/평균값



주 : 산지가격은 신선·냉장고등어의 위판가격이며, 소비자가격은 냉동고등어 가격임
 자료 : 수산업관측센터 「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」, 각 호 참조

< 그림 4 > 최근 5년 평균 고등어 산지 및 소비자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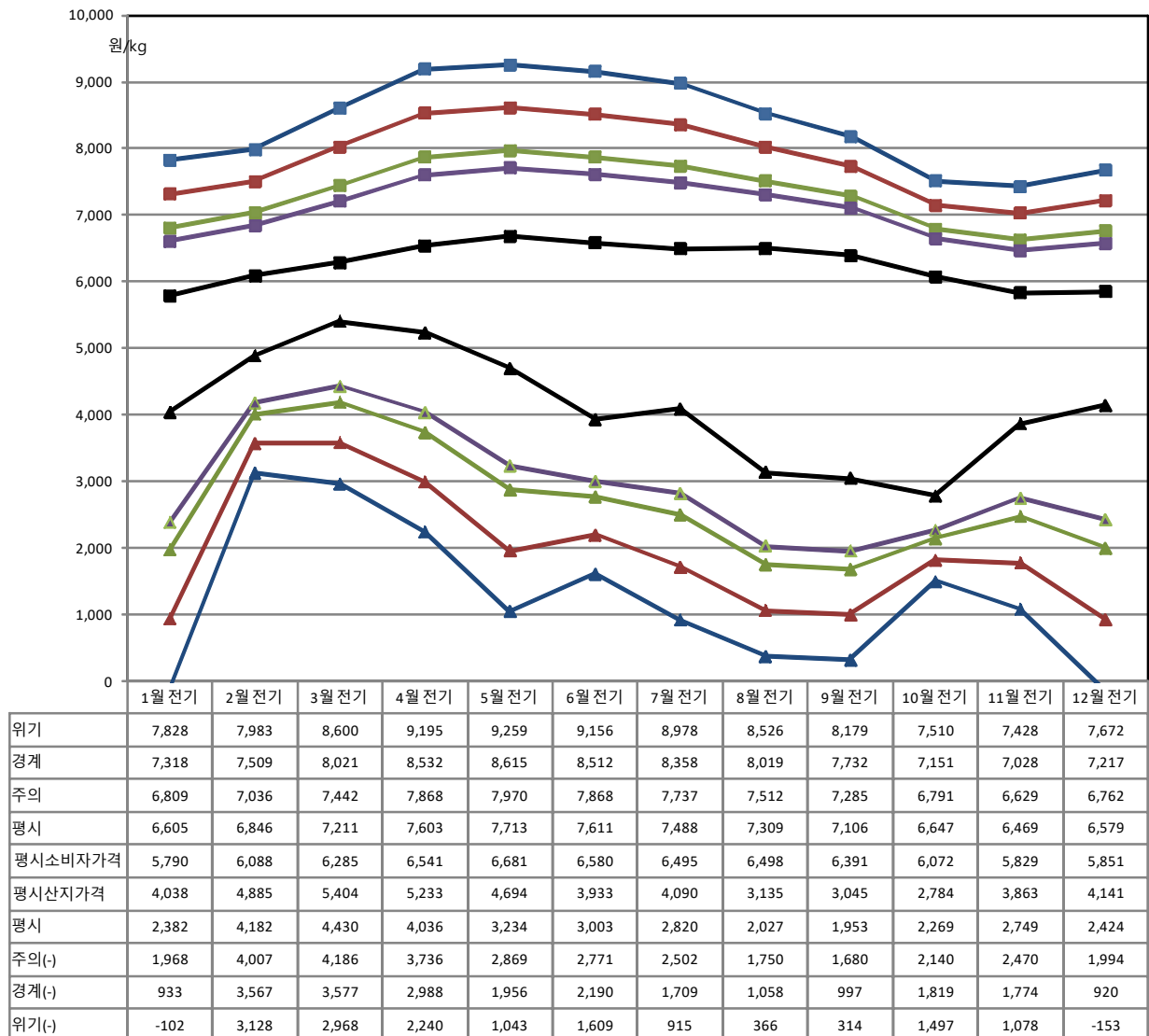
- 이론상 평균비축기간 9개월가량이 소요되며, 냉동보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
 - 주생산시기는 9월~이듬해 1월까지이지만, 냉동으로 보관하는데 좋은 상품은 10월~1월까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, 어한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5월~9월까지 최단 6개월, 최장 1년 평균 9개월 정도의 보관이 필요함
 - 가을철 주어획기에 생산되는 고등어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대를 이용한 수산비축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

□ 가격안정대 시뮬레이션 결과(최근 5개년)

- 적용가격 : 산지가격(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), 소비자가격(aT 조사가격)
- 구간별 실제 빈도

	소비자가격		산지가격	
	빈도(회)	비율(%)	빈도(회)	비율(%)
평시	49	81.7	45	75.0
주의	1	1.7	8	13.3
경계	5	8.3	5	8.3
위기	5	8.3	2	3.3
합계	60	100.0	60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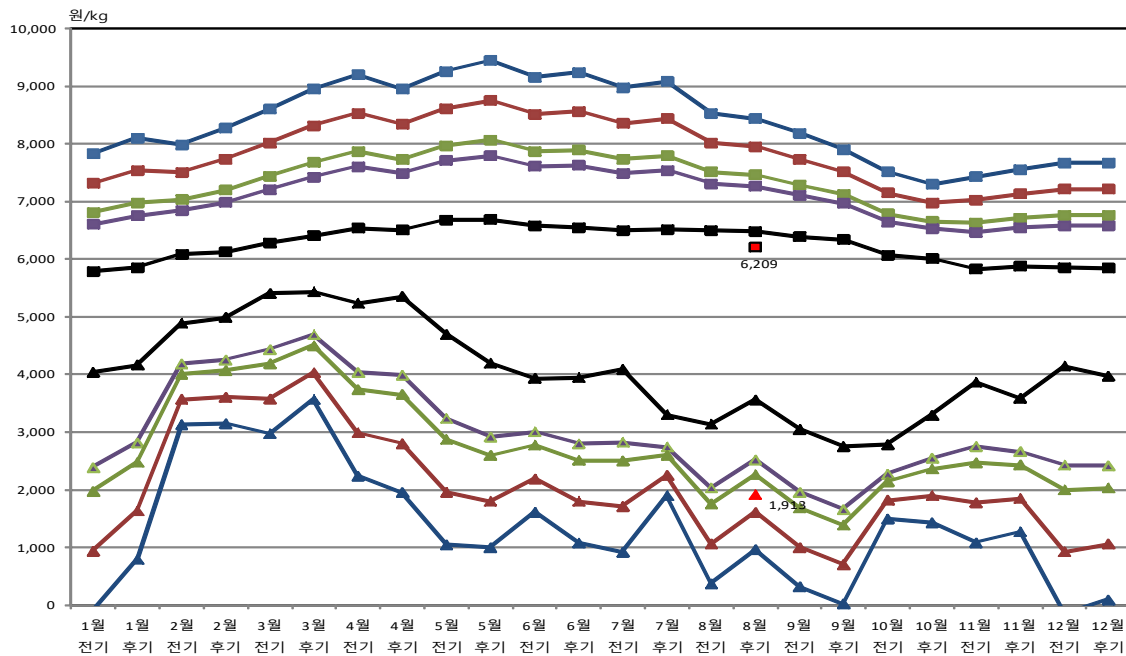
○ 고등어의 가격안정대



□ 가격안정대 진단

- 고등어의 경우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이에 따라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
 - － 먼저 가격의 하한은 산지가격으로 상한은 소비자가격으로 설정하되, 수매·비축사업이 냉동고등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냉동고등어의 kg당 가격으로 하여 설정하였음

- 8월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고등어 산지가격은 평균가격과 최근 5년간 표준편차의 100%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계단계에 있으며, 소비자가격은 최근 5년 평균가격을 밑도는 평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
- 따라서 가격안정대를 기준으로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등어 비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



< 그림 5 > 고등어의 가격안정대

Memo

Memo

Memo

Memo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.

Memo

Memo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8 horizontal dotted lines.